

[사회]

■ 광주역 노숙자들의 힘겨운 세밀

추위 떨어져 가족생각 한숨만...

연말연시 광주 도심 곳곳을 밝히는 형형색색(形形色色)의 전구들. 그 화려함 뒤에는 가족 생각이 더욱 가슴 저리는 노숙자들이 있다. 교회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점심 한끼로 하루를 때우고, 밤엔 술에 절여 잠을 청한다.

성탄절 전날인 24일 밤 11시30분,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주역'. 대합실엔 허름한 옷을 입은 5명의 남자가 TV 앞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춥지 않아요?"라고 묻자 키가 180cm 남짓 되는 한 남자가 "온풍기가 있어서 견딜만하다"고 말했다. 장대성(가명·35)씨는 왼쪽 눈이 반쯤 감겼다. 3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를 다쳤다고 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사장님' 소리를 들었죠. 장성에 서 작은 호프집을 했었거든. 하지만 장사가 되지 않아 결국 2억원의 빚을 졌어요. 가게를 팔았지만, 턱없이 부족했죠. 가족을 볼 면목이 없어 결국 집을 나왔어요."

그는 매달 20일 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비 30만원을 받지만 "술값으로 다 쓴다"고 했다. 10살 된 아들 생각이 괴로워 술·담배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이호범(가명·33)씨는 서울에서 과일장사를 하다 망해, 열차에 몸을 싣고 전국을 떠돌다가 광주에 왔다. 그동안 컨테이너 박스에서 지냈지만, 12월 이후 광주역에서 밤을 샌다. 팔과 다리는 아ویه 뼈가 앙상했다.

"세밀이라고 뭐 다른가요? 하루 밥 한끼 먹는 게 걱정이죠. 다른 불우시설과는 달리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술 주정때문에 10년 전 아내가 가출했다는 박환희(가명·65)씨, 이날도 술에 취해 대합실 의자에 어깨를 기대고 잠이 들어 있었다. 대합실에서 만난 5명 중 박씨를 뺀 나머지는 30대였다.

경찰은 광주역 등 시내를 떠도는 노숙자들이 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할 시스템이 없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 달 수입은 구청에서 지급하는 30만원이 전부. 이 때문에 구청 미화원을 사칭하며 음식점을 돌며

"용돈"을 뜯어내는 일도 있었다. 노숙자들의 개인신상은 흔돈에 거래돼 급전 대환이나 '대포차' 구입 등 다른 범죄의 통로가 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김모(39)씨가 시설에서 강제퇴소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러 4명이 숨지는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등종합사회복지관' 정종윤(31) 사회복지사는 "많은 단체가 자활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의지가 약해져 버린 탓에 꾸준히 참여하지 못하고 노숙 생활로 되돌아온 한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자포자기 속 술로 하루 타진

자활시스템 미흡 소외감 더해



성탄 이브인 24일 밤,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주역 대합실에서 노숙자들이 의자에 앉아 TV를 보며 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직업관 형성, 부모·연예인 영향 크다

부모와 연예인 등이 청소년의 직업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5~34세 1천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직업관 형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2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7.9%가 '부모 및 가족'이 청소년기 직업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어 TV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23.1%), 친구 및 선배(14.0%), 사회 저명인사(7.7%), 학교 선생님(7.2%) 등의 순이었다. 또 응답자의 80.3%가 청소년들이나 취업준비생이 이용 가능한 직업 및 진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해 직업 및 진로 지도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전남대·광주교대 등

정시 원서접수 오늘 마감

조선대·목포대는 내일

가·나·가나군에 속하는 대학들이 26일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다. 가·나·가나군에 속하는 광주·전남지역 대학은 전남대를 비롯한 광주교대·광산대·광주가톨릭대·명신대·목포가톨릭대·초당대·한려대 등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국민대·동국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 등이다.

전남대는 25일 오후 5시 현재 총 모집인원 3천635명에 4천367명이 지원해 1.2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광주캠퍼스는 2천936명 모집에 3천830명이 지원, 1.3대 1을, 여수캠퍼스는 699명 모집에 537명이 지원, 0.77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 중이다.

일반전형에서는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학부가 18명 모집에 103명이 지원해 5.7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공과대학 식물생명공학부가 22명 모집에 123명이 지원해 5.5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휴일을 맞아 23~25일 원서접수를 일시 중단한 광주교대의 경우 22일 오후 5시 현재 498명 모집에 225명이 지원해 0.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강대는 25일 오후 5시 현재 783

명을 모집하는 일반전형에 총 1천205명이 지원해 1.5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법학계가 43명 모집에 127명이 지원해 2.9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 중이다.

성균관대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총 모집인원 2천592명에 3천324명이 지원해 1.28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연가예술학전공(연가)과 디자인학전공(씨피스디자인)이 각각 7.8대 1과 6.8대 1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상태이다.

연세대의 경우 25일 오후 5시 현재 서울캠퍼스 일반전형 2천93명 모집에 3천363명이 몰려 1.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과별로는 석학과 5대 1, 기학과 4.72대 1, 사회체육학과 4.05대 1, 치의예과가 2.18대 1, 의예과 1.91대 1 등이다.

목포대·목포해양대·순천대·광주대·광주여대·남부대·대불대·동신대·조선대·호남대·호남신학대 등 다·가·나·가나군에 속하는 광주·전남지역 대학은 27일 원서접수를 마감한다. 서울의 가톨릭대·건국대·경희대·고려대·단국대·서울여대·숙명여대·한국외국어대·한양대 등도 27일 원서접수를 마감한다. /한태준기자 hwangtae@kwangju.co.kr

'억지 고소·고발' 수사 안한다

검찰, 새해부터

검찰은 새해부터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각하' 결정을 내려 수사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고소·고발의 남용과 이에 따른 검찰 수사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으며 내년 1월8일까지 반대 의견이 없으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중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각하'의 사유에 "사안의 경중과 경위, 고소인과 피고인 및 고발인과 피고발인 관계 등에 비춰 피고소인과 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추가했다.

중전 각하 사유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동일 사건에 관해 검사

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 불명으로 진술을 정취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올 4~5월부터 서울 남부지검과 수원지검 부천지청, 대전지검 등에서 시범 실시해온 '고소사건 조정제'도 효과가 크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정 절차는 고소인 동의를 거쳐 지검별로 설치된 화해중재위에서 맡고 있으며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다시 검사에게 배당돼 일반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뤄진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피고소자는 59만7399명으로 2001년 50만7천107명보다 16.5% 증가했지만 이 가운데 기소된 인원은 10만931명(17.1%)으로 2001년 10만2천46명(20.1%)보다 오히려 줄었다. /연합뉴스

Weather forecast for December 26th,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for various regions (Seoul, Gyeonggi, etc.) and a map of Korea showing weather patterns. Includes a table for the week's weather and a small table for the day's high/low temperatures.

Article titled '올 인기 검색어 1위 '월드컵'' (This year's most popular search term is 'World Cup'). Discusses the popularity of the World Cup and other search terms like 'red devil' and 'Empas'.

Article titled '한수원 본사 유치 촉구' (Urge for HANUON headquarters relocation). Discusses the relocation of HANUON's headquarters from Seoul to Gyeongju.

Advertisement for '현대직업전문학교' (Modern Vocational College), highlighting its curriculum, faculty,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2007 겨울방학 공무원 대특강' (2007 Winter Vacation Public Servant Special Lecture), offering exam preparation courses.

Advertisement for '한빛공무원학원' (Hanbit Public Servant Academy), featuring a '2007 국가직 지방직예 공무원' (2007 National/Local Government Exam Public Servant) course.

Large advertisement for '리틀차이나 中国語学院' (Little China Chinese Language Academy), promoting Chinese language classes starting on January 3rd.